‘임실N치즈축제’ 홍보 속도

10월 8~11일 개최… 전주가맥축제·JUMF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부스 운영

임실군이 ‘2026 임실N치즈축제’의 개막을 50여 일 앞두고 전국 관광객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임실N치즈축제 모습.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이 ‘2026 임실N치즈축제’의 개막을 50여 일 앞두고 전국 관광객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군은 올 가을 임실을 찾을 관광객들에게 한층 새로워진 임실N치즈축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SNS와 TV·라디오·신문 등 온·오프라인 매체는 물론, 관광객이 모이는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에서 열린 전주가맥축제와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된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행사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젊은 층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임실N치즈축제를 직접 알리는 현장 마케팅을 전개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축제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광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올해 임실N치즈축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올해로 제12회를 맞는 2026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 행복을 늘리다!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비롯해 임실치즈마을과 임실읍 일원에서 더욱 특별하고 풍성하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축제 공간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읍 시내까지 확장해 축제의 외연을 넓힌다.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가 탄생한 옛 치즈공장과 지정환 신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임실성당 등 임실치즈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있는 공간을 축제의 무대로 연결해 관광객들이 임실치즈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만나도록 할 계획이다.

한득수 군수는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뿐만 아니라 임실의 역사와 문화, 맛과 멋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제의 무대와 콘텐츠를 한층 확장했다”며 “개막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찾도록 하고, 대한민국 치즈의 본 고장 임실에서 잊지 못할 가을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장류축제 경쟁력 강화 모색

‘글로벌 축제와 지방관광 활성화’ 주제 학술포럼 열려

순창군이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제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관광·축제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21일 전주 시그니처 호텔 1층 아트홀에서는 ‘글로벌 축제와 지방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특성화 지방대학 대학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관광콘텐츠학회(학회장 류인평)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웰니스관광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는 관광·축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과 지방관광 활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추어, 홍콩 식품박람회 참가 성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와 남원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 ‘2026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 2026)’에 참가해 준비한 출품물량을 전량 완판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올해로 3년 연속 홍콩 식품박람회에 참가한 미꾸야는 지난 2년간 축적한 현지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전략적 제품 라인업을 구성해 이번 박람회에 임했으며,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준비한 수량을 조기 완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 해외 시장에 첫선을 보인 상온 간편식 추어탕 ‘온추어탕’은 현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함께 출품한 ‘미꾸야 꾸이랑’ 역시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다. 추어 페이스트를 넣어 구운 저지방·고단백 어포 스낵인 ‘미꾸야 꾸이랑’은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행렬이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K-푸드로드’ 본격화

지역 미식자원·문화관광 콘텐츠 연계 원도심 관광 활성화 추진

남원시가 지역의 대표 미식자원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이끌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남원 미식관광 플랫폼 ‘흥미로(興味路)’를 구축한다.

핵심 대상지는 광한루원-경외상가-추어거리-월광포차를 연결하는 약 1㎞ 구간으로, 미식자원 조사와 대표메뉴 개발, 팝업·페스타, 문화예술 및 야간 체류 콘텐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흥부제와 연계한 ‘흥미로 11일장’을 비롯해 ‘한입 남원 20선’ 미식장터, 달빛 미식장터(야간), 미식 NPC 거리극, 지역 음식점 대표메뉴 개발, 경외상가 순환형 팝업스토어, 노포패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의 미식 체험이 실제 음식점 방문과 원도심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21일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 현장에서는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경외 상가 일원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는 K-푸드로드, K-뷰티, 동부권 미식관광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간 연계 필요성도 공유됐으며, 시는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공간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양충모 남원시장은 “K-푸드로드는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을 찾은 관광객의 발길을 경외 상가와 추어거리, 원도심으로 확장해 관광을 실질적인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남원만의 음식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미식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음식점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미식관광 기반을 만들어 남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푸드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춘향애인 캠벨포도, 베트남 수출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대표 농산물인 ‘춘향애인 고랭지 캠벨포도’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베트남으로 수출하며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4일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춘향애인 고랭지 캠벨포도’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개최, 이날 행사에는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 정대환 지리산농협 조합장,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수출 규모는 총 10톤, 약 1억 원 상당이다. 이번 첫 수출 물량인 3,120㎏은 현지 소비 트렌트를 반영하여 1㎏, 1.5㎏, 3㎏ 단위의 소포장으로 구성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시는 이번 연속 수출을 계기로 베트남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지 판촉과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회,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

순창군의회는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소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순창군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9월 실시

남원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우제류(소·염소)를 대상으로 ‘26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염소 약 45,000두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 전두수가 대상이며,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 시 구강,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가 생기고 식욕이 저하되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해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백신 접종은 농가 규모별로(소규모, 중규모, 전업농가) 실시하며, 소규모농가는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공수 의사가 직접 방문하고 중규모 농가는 백신은 무상 공급이나 자가접종이며 전업농가는 남원축협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하여 자가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일제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 기준 소 80%, 염소 60%로, 검사 결과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경천 가을꽃 경관 조성 앞두고 환경정비 나서

순창군이 가을꽃으로 물들 경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순창교에서 두물머리공원까지 이어지는 경천 일원에서 ‘2026년 경천 가을꽃 경관조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및 직원 165여명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구간별로 나눠 가을꽃 조성지 주변의 풀을 제거하고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정리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최영일 군수는 환경정비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천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을꽃과 어우러진 하천 경관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